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4:13-22(현대인의 성경)

1. 말씀

13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그리고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아 죄를 짓게 하는 일도 없도록 합시다.
14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더럽습니다.
15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이 먹는 음식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형제를 먹는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16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18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19 그러므로 화목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20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 놓지 마십시오. 음식은 다 좋은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서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21 여러분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꺼림칙하게 하는 것이라면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 밖의 일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22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3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13절에서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_____

- 15절에서 '형제를 먹는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14-16절)

→ _____

- 최근에 누군가를 판단한 적이 있나요? 그 판단의 이유와 근거 그리고 결과는 어땠나요?

→ _____

- 내가 신앙생활에서 중요시 하는 것(외형, 규칙, 관습 등)은 어떤 것인가요?

→ _____

-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이 누군가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 _____

-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17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_____

-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나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 나는 '화목'과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는 쪽에 가까운가요? 내가 있는 곳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4:13-23 (넘어지게 하지 마라)

교회에서 본질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과 탄식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문제이므로, 성도 각 개인이 자신의 판단과 신앙 양심에 맡겨야 하는 '아디아포라'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 출발 이래로 줄 곳 있어 왔으며, 성도들의 행위에서 무엇이 잘못인가의 논쟁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개별적인 말 한마디와 하찮은 행동 하나에서도 고도의 윤리적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른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성경이 이 행위를 금하고 있는지, 죄가 아닐지라도 시험에 빠지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지'를 고려해야겠지요. 본질적으로 모든 사물은 죄가 없다는 사실과 함께 성도는 스스로 성경을 아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교회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진리에 기반 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온유함과 예의를 갖춘 성도로 준비되길 소망합니다.

6. 기도